장수 축산사업 90억 투입

군, 경쟁력 강화 · 동물복지 사업 신청 접수… 24일까지

장수군은 축산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54개 사업에 90억원을 투입한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축종별 품질향상 지원 ▲사육시설 및 장비(기자재) 현대화 사업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방역약품지원 ▲구제역 백신접종지원 ▲HACCP(무항생제) 인증 등을 지원하고 특히 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관내에서 축산업 허가(등록)한 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며 오는 24일까지 각 읍·면 산업팀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군은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축산 농가의 노력으로 농업소득 281억원 중 46%인 129억원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군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17년도 소 도체등급 판정결과 한우(거세우 기준)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이 67%에 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전국 평균 62%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이다.

축산과 최대현 과장은 "장수 축산발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축종별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축산농가에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400m기준 태양광 136만8000원 · 윤형울타리 192만원

진안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총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해 피해예방시설 사업비의 60%를 보조해 전기울타리 및 윤형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당 지원액은 400m기준으로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136만8,000원, 윤형울타리는 192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다.

특히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임야와 농경지가 접해 있어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4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환경산림과(☎430-233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고 장수군 위해 똘똘 뭉친 공무원

경관농업 · 치유농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발주 협의회

장수군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팀장 정승모) 주관으로 18일 14시에 장수군경관농업 및 치유농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위해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팀 최귀숙 팀장과 6차사업단 노익선 사무국장, 생활자원팀 이수란 팀장, 식품클러스터 사업단 유영일 사무국장,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최석원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18일 기획조정실에서 개최했다.

발주예정인 연구용역사업은 장수군의 산림, 농업,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관조성으로 장수관광여건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치유농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수군은 이번에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2019년도 완공예정인 장수레드푸드융복합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활용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대외협력 정승모 팀장은 "관광자원을 활용한 쉼과 힐링의 효과를 주는 장수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메아리

장수경찰서, 112타격대 비상상황 대비 출동태세 점검

장수경찰서(서장 정재봉)는 17일 오후 경찰서 주차장에서 각종 재해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112타격대 출동태세와 장비점검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및 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112타격대원들의 유형별 임무수행 및 장비숙지여부를 점검해 신속한 출동 및 대비태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했다. 또한 치매노인, 가출인 등 미귀가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수색이 실시될 수 있도록 상황에 대비한 훈련점검과 PT체조 등 기초체력단련도 함께 실시했다.

작전의경 담당 권규안 순경은 "비상상황 발생시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평온한 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112타격대원들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의회 박명석 의장, AI 거점소독시설 방문 격려

진안군의회 박명석 의장이 지난 17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AI 거점소독 근무초소를 방문하여 초소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진안군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비상체제로 돌입되면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군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소독 근무초소를 진안 IC 인근 고속도로 진출입로는 물론 인근 시군과 연결되는 주요국도 및 지방도에 2개의 초소를 설치해 1일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박명석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AI 상황이 심각단계에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방역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박명석 의장이 지난 17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AI 거점소독 근무초소를 방문하여 초소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무주경찰서, 타격대장 인권의식 향상 간담회 개최

무주경찰서는 지난 17일 경찰서장실에서 의무경찰을 관리하는 타격대장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날 간담회는 타격대장들의 인권의식 제고, 부대관리 내실화를 위한 방안, 의경들의 생활문화 개선 등 기본과 원칙에 따라 악습을 근절하도록 타격대장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교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중섭 서장은 "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주계파출소, 치매노인 안전귀가 조치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는 지난 17일 자정이 다된 11시 30분쯤 집을 찾지 못해 거리를 방황하고 있던 김 할머니(81)를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시켜 드려 화제다.

이 날, 할머니가 읍사무소 부근에서 추위에 떨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위 이상연과 순경 김서윤 은 집에 대해 기억을 못하고 인적사항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치매증상을 보이는 할머니 때문에, 주변 마을 주민과 이장 분들을 상대로 집을 수소문하여 가까스로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드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집 앞에 와서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재전진안군향우회,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1000만원 전달

재전진안군향우회(회장 윤석정)가 18일 재전진안군향우회 신년하례회를 맞이하여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윤석정 회장은 "늘 고향발전을 염원하고 있으며 지역 후배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희망진안의 발전과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랑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전진안군향우회는 2015년 500만원, 2016년·2017년 1,000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올해에도 1,000만원을 전달하면서 총 3,500만원의 장학금을 장학재단에 기탁하게 됐다.

또 향우들과 진안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진안사람 한마음 큰잔치'를 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